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개소 20주년

열림터,
스무해를
열다.

20

여성권익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121-884)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합정동)

전화 02-338-3562 팩스 02-338-7122

이메일 yeolim94@hanmail.net 홈페이지 www.sisters.or.kr 블로그 www.yeolim.or.kr

해피빈 happylog.naver.com/yeolim



성폭력 생존자들의 치유와 성장의 여정에 함께 합니다.

“모든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열려 있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게 하는 터”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이 피해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하며 피해 후유증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새로운 삶과 자립을 준비하는 국내 최초의 쉼터로 1994년 9월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주의 쉼터운동의 시발점이었던 열림터 활동은 지난 20년 동안 모험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 지지의 힘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열림터는 성폭력 생존자들의 여정에 함께 하며 피해자를 위한 치유의 공간, 생존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삶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열림터, 스무해를 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
열림터

02

입·퇴소 지원

360명의 생존자와 함께 살아가다

03

일상생활 지원

안전한 생활공간, 일상을 꾸려나가기

04

심리상담 지원

내면의 힘 찾기

05

법률 지원

성폭력생존자의 법적권리 실현

06

의료 지원

내 몸 돌보기로 건강해지기

07

학업 및 학습 지원

나의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시간

08

치유·회복프로그램 지원

치유와 성장의 여정

09

직업훈련과 자립지원

쉼터 이후 삶 모색

10

퇴소 후 지원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11

1994 ~ 2014 열림터 20년

열림터가 걸어온 길

360명의 생존자와 함께 살아가다

피난처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피해를 입고 있다면 당장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전무한 1990년 초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쉼터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 사회 최초의 성폭력피해자쉼터인 열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1994년 9월 두 명의 생활인으로 출발해 열림터는 지난 20년 동안 360여명의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짧게는 이틀에서부터 길게는 1600여 일 동안 생활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피난처로 시작한 열림터는 현재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이나 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2년 범위에서 1회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안전한 생활공간, 일상을 꾸려나가기

피해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일상을 훈련하고 스스로 일상을 책임지고 꾸려나가기

집이면서 집이 아닌 곳,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열림터는 피해자들이 피해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생활인들은 보통의 집에서처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쉼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다양한 관계, 새로운 생활방식, 낯선 가치관과 마주하고 적응하게 됩니다.

열림터에서는 스스로 일상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해 퇴소 이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생활인들이 혼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내면의 힘 찾기

스스로 찾아낸 내면의 힘으로
성폭력피해자에서 성폭력생존자로

생활인 개별 입소상담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퇴소 할 때까지 전반에 걸쳐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생활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다사다난한 일들에 대한 생활상담도 이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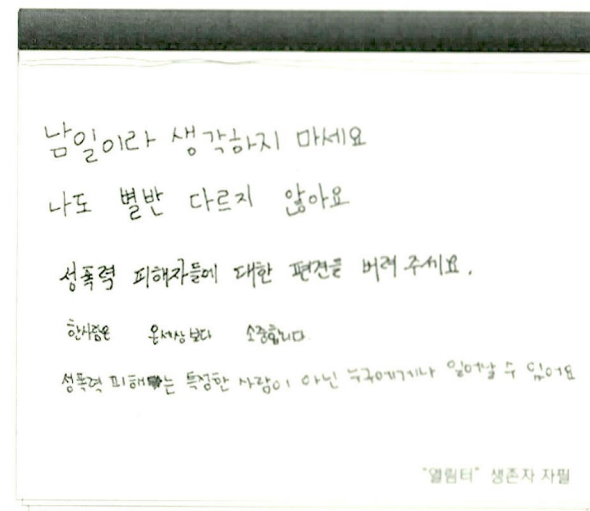
처음 들어온 입소자는 심리평가를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고 향후 지원 방향을 정하는데도 도움을 받습니다.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뤄집니다.

생활인들은 여성주의 상담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본인의 경험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새로운 시각으로 피해경험을 재해석 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갑니다.



성폭력 생존자의 법적권리 실현

권리를 찾고 성장하는 과정



열림터에서 생활하는 대다수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입 다물기를 강요당하고, 가족을 고소했다는 비난에 시달리며, 아무도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는 열림터의 운영철학은 생활인들이 법적진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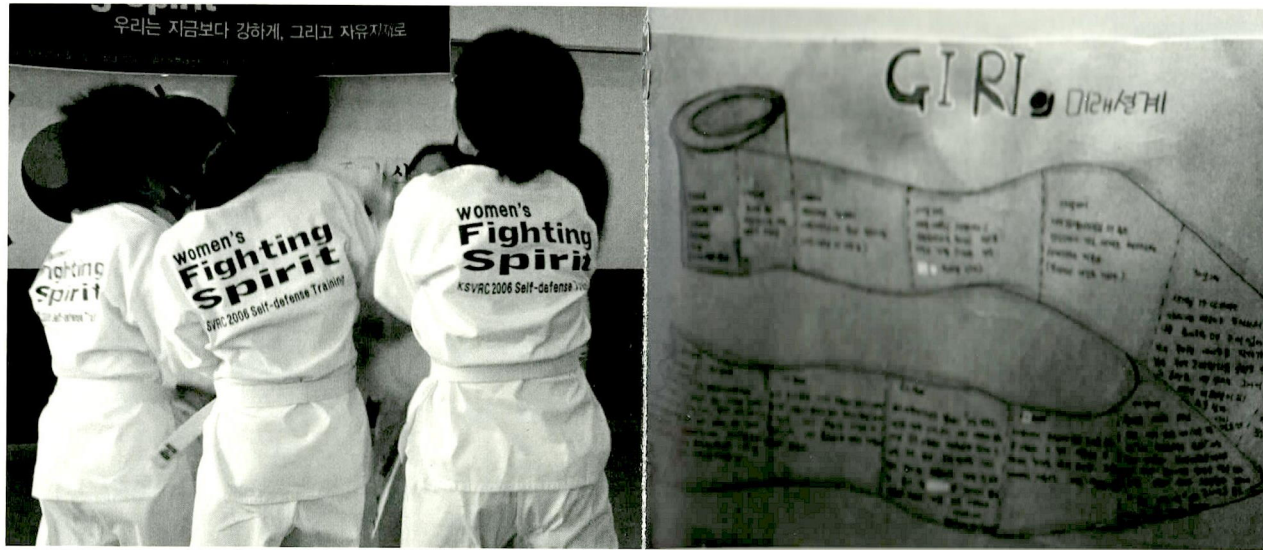
열림터는 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적극 지지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몸 돌보기로 건강해지기

자기를 돌보고 건강해지는 법을 배우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생활인들은 성장기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인들은 피해환경을 벗어나 안전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러 신체화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열림터에 와서야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생활인들은 비로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 후유증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고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은 성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시간

미래를 준비하다

열림터는 성폭력피해학생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밀전학을 실시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 개인의 학습능력과 수준에 따른 맞춤 지원으로 학습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며 학업을 계속할 의욕을 북돋웁니다.

학교생활에 적응이 힘든 생활인에게는 학력 인증이 되는 교육기관을 연계하거나 검정고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치유와 성장의 여정

생활인들의 치유회복과 역량강화

열림터는 생활인들의 치유회복과 역량강화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 미술, 연극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생활인들이 자기가 겪은 성폭력을 직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치유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표현을 통해 억압해왔던 감정을 표출하고 내면의 힘을 확인하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인식하고 주체적인 실천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인들이 다양한 방식의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성폭력을 치유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쉼터 이후 삶 모색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다

퇴소 후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생존자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열림터는 생활인의 적성과 욕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직업훈련을 통해 퇴소 이후의 자립을 준비합니다.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지원 네트워크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생존자들이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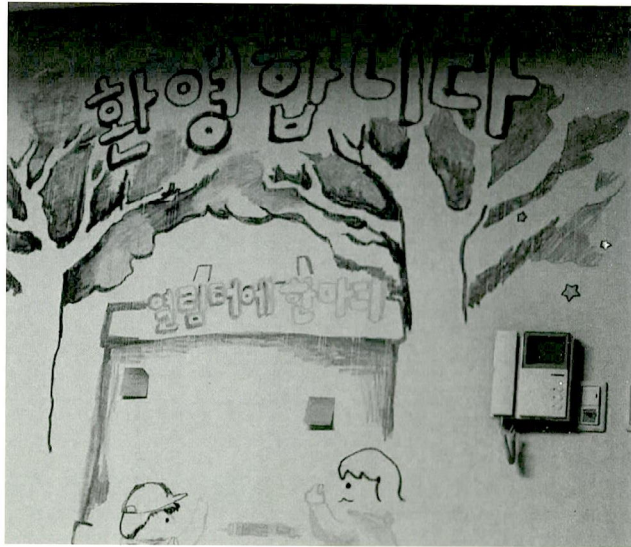


든든한 버팀목이 되다

격려와 지지로 안정적인 생활지원

생활인이 퇴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에 따라 퇴소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림터에서는 퇴소 후속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사회 적응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매년 정기적인 퇴소자 자조모임을 실시하여 퇴소자들의 생활 현황을 파악하고 열림터가 퇴소 이후에도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 ~ 2014

열림터
20년

- 1994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개소
- 1995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열림터 허가
- 1995 개소 1주년 세미나 '내일을 여는 열림터' 개최
- 1999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개최
- 2000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사업' 주관
- 200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 사업' 주관
- 200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내일을 여는 쉼터' 발간
- 2003 상담소 부설기관으로 분리, 사업자 등록
- 2004 자립지지공동체 '하담' 개설
- 2004 친족 지원 상담매뉴얼 발간
- 2004 10주년기념 세미나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피해 생존자 지원현황과 과제'
- 2006 '하담' 운영 중단, 고양여성민우회에 시설 이관
- 2007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매뉴얼 '나침반을 찾아라' 발간
- 2013 여성주의 저널 일다 '친족성폭력 이야기' 연재
- 2014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친족성폭력생존자와 열림터, 함께 말하다' 발간
- 2014 20주년 기념식 '열림터, 스무해를 열다.' 개최

여성주의 지향하는 열린터의 9가지 노력

1.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어떤 폭력도 거부한다.
3. 가해자 처벌은 피해회복의 시작이다.
4.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5. 성폭력피해생존자에 관한 통념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한다.
6. 열린 운영을 통해 열린터가 사회와 격리된 공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7. 생활인들을 위한 지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8. 생존자들의 인권 보호에는 무디고 행정 편의만을 추구하는 제도화를 반대한다.
9. 쉼터 이후의 삶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열린터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열린터 생존자들의 일상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채워집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반성폭력 운동, 후원회원!
여러분의 후원은 성폭력생존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후원안내

후원방법 CMS 자동이체, 일시기부 등

후원계좌 우리은행 570-327400-13-002

(예금주: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린터)

후원문의 전화 02-338-3562 또는 yeolim94@hanmail.net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발행인 문숙영

만든이 문숙영, 김효진

디자인 이원경

본 책자의 저작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린터에 있습니다.

